

DEFY REVIVAL A3691, 생동감 넘치는 컬러 다이얼과 함께 최초의 DEFY 모델의 귀환을 알리다

지난 해 최초의 DEFY 손목시계를 재해석한 제니스가 눈부신 컬러를 활용하는 컬렉션 특유의 대담한 디자인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의미 깊은 1971 년의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DEFY Revival A3691 을 선보이며 아이코닉한 DEFY 타임피스를 충실히 재해석한 컬렉션의 두 번째 모델을 공개합니다.

제니스가 DEFY 컬렉션의 본질, 그리고 현대적인 DEFY 컬렉션에 계속해서 영감을 선사하는 과거의 레퍼런스에 깃든 정수를 다시 한번 되짚어 나가면서 1971 년의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A3691 을 리메이크한 두 번째 DEFY Revival 모델을 선보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레드 컬러 그라데이션 효과 다이얼과 견고한 기하학적 케이스를 탑재한 **DEFY Revival A3691** 은 영구 컬렉션 내 최초의 DEFY Revival 모델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1969 년은 제니스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영원히 기억될 해입니다. 매뉴팩처는 그해 유서 깊은 엘 프리메로 칼리버를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DEFY 손목시계 컬렉션도 선보였습니다. 제니스는 전통적인 스위스 워치메이킹을 위협하는 쿼츠 시계의 등장에 맞서 확고한 입장을 취했으며, 독특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당시 대량 생산 전자시계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견고함을 갖춘 타임피스를 선보이며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 DEFY 컬렉션의 첫 번째 모델 중 하나인 A3642 에는 프랑스어로 “은행 금고” 또는 “안전 금고”를 의미하는 *coffre-fort* 라는 애칭이 붙여졌습니다. 약 2 년 후 제니스는 이 대담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딥 레드 다이얼을 탑재한 A3691 을 포함하여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비네트 효과를 연출하는 새롭고 컬러풀한 다이얼을 선보였습니다.

역사적인 생산 계획에 따라 놀랍도록 정확한 디테일로 재현해낸 **DEFY Revival A3691** 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독보적인 레퍼런스이자 오늘날의 DEFY 컬렉션에도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코드를 구축했던 최초의 DEFY 손목시계 속 모든 디테일과 독특한 디자인 요소를 고스란히 구현해 냈습니다. 여기에는 14 개의 면을 갖춘 베젤을 탑재한 각면 처리된 팔각형 케이스,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비네트 효과를 연출하는 딥 글로시 레드 다이얼, 가로로 난 홈 디테일로 독특한 매력을 선사하는 스퀘어 형태의 아워 마커, 더욱 모던하고 인체공학적인 폴딩 클래스프가 장착되어 한층 높은 수준으로 거듭난 아이코닉한 게 프레르(Gay Frères) 스틸 “래더” 브레이슬릿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오리지널 모델과 리바이벌 모델의 외관상 차이점은 사파이어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케이스백, 야광 피그먼트 유형뿐이며, 오리지널 모델에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을 더하여 디자인에는 변화가 있었으나 방수 기능은 30ATM(300m)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시계 내부에 존재합니다. 오리지널에 탑재된 솔리드 케이스백, 그리고 브랜드의 로고로 자리 잡으며 향후 수년간 반복적인 디자인 요소로 활용되었던 4 개의 포인트가 돋보이는 스타 장식 대신 **DEFY Revival A3691** 에는 사파이어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4Hz(28,800VpH)로 박동하며 50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오토매틱 엘리트 670 매뉴팩처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유 번호가 새겨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DEFY Revival A3642 와는 달리 **DEFY Revival A3691** 버전은 영구 DEFY 컬렉션에 포함되어 수집가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전 세계 제니스 부티크와 공식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니스: 꿈을 향한 도전.

제니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추구하며 이를 이뤄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1865년 설립 이후 제니스는 최초의 수직 통합형 스위스 시계 매뉴팩처로 자리 잡았으며, 제니스 시계는 영국해협 횡단 비행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루이 블레리오(Louis Blériot)부터 성층권 자유낙하 기록을 세운 펠릭스 바움가트너(Felix Baumgartner)에 이르기까지 큰 꿈을 꾸며 불가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특별한 인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제니스는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드림허스(DREAMHERS) 플랫폼을 마련해 선구적인 여성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들에게 주목합니다.

혁신의 별을 따라 전진하는 제니스는 모든 시계에 인하우스 방식으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무브먼트를 사용합니다. 제니스는 1969년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를 출시했으며, 계속해서 0.1 초까지 측정 가능한 Chronomaster 컬렉션과 0.01 초의 정밀성을 갖춘 DEFY 컬렉션을 통해 정밀한 고진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 측정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혁신은 곧 책임을 의미합니다. 제니스 HORIZ-ON 이니셔티브는 포용성과 다양성, 지속 가능성, 직원의 복리후생이라는 세 가지 헌신을 약속합니다. 제니스는 1865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차원을 향한 열정적인 도전과 함께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만의 꿈을 향해 손을 뻗을 시간입니다.

DEFY REVIVAL A3691

레퍼런스: 03.A3642.670/3691.M3642

핵심 사항: 레퍼런스 A3691의 오리지널 버전 리바이벌. 아이코닉한 14개의 면을 갖춘 베젤을 탑재한 팔각형 케이스

무브먼트: 엘리트 670 오토매틱

진동 수 시간당 28,800회(4Hz)

파워 리저브: 약 50시간

기능: 중앙에 위치한 아워 및 미닛 핸즈. 센트럴 세컨즈 핸드. 4시 30분 방향에 위치한 날짜 표시창

마감: 새로운 별 모양 로터 및 새틴 마감

가격: 6,900 스위스 프랑

소재: 스테인리스 스틸

방수: 30ATM

케이스: 37mm

다이얼: 루비 그라데이션 다이얼

아워 마커: 로듐 도금 및 각면 처리

핸즈: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브레이슬릿 & 버클: 27.03.1816.M3642 스테인리스 스틸 "래더" 브레이슬릿.

